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월 29일(금)
--(윤력 12월 17일)--
Пятница
29 января 2021г.
№ 4 (1192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교장 아.워로호와)의 한민족예술과 개설 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취재: 이에 기자)

2020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중 400명이 차량을 가스로 전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는 2020년 개인용 일반 차량을 가스차량으로 전환하는 비용 보상 프로그램 실시의 총결산을 내린 가운데 2021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됨을 상기시켰다.

차량의 연료 장비 전환에 대한 보상은 15만 루블리 한도 내에서 전환 비용의 100%를 제공한다. 2020년 총결에 따르면 대부분이 지난해 4분기 말에 417명의 차주가 이런 지원금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88명이 비용 보상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개인 자금을 들여 전환했다. 229명은 차주와 자동차 정비센터와 시행정부와 3자 협약 방식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에서는 차주가 전환 절차로 자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정부가 직접 자동차 정비센터에 지급한다.

자동차를 가스 엔진으로 전환할 경우 시 주민들이 받을 이익으로는 가스엔진 연료가 휘발유보다 3-4배 더 경제적이며, 가스 연료 차량 소유자의 교통세도 2배 저렴하다는 점이다. 차량에 가스통을 설치한 후에도 휘발유 연료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차량에 가스 엔진으로 교체하는 데는 하루 반에서 이를 걸린다. 차량의 가스 엔진으로 교체를 위한 보상금 수령은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는 차량 운행이 20년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은 반드시 사할린주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차량을 가스엔진으로 전환시킬 차량 정비소의 주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들이 공지돼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시 경리부(프로스펙트 미라 64a 사무실 106호, 116호)에서 가스 엔진으로 차량 개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300-584 (추가 4,7,8))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사할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건수 전국 선두지역 중 하나

사할린, 국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전국 선두지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지역 대표들과 코로나19 방역 백신 접종 운동 경과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밝혔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다. 총리는 "국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3만 명 이상이 접종을 접수했다. 지역 인구 비율 접수 건수로 선두를 차지하는 지역은 사할린주, 무르만스크, 네네츠크 자치구, 칼미키야, 칼리닌그라드주이다." 라고 언급했다.

사할린에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백신을 접종 받았고 이들 중 1,300여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건강상 의료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되었다.

사할린주에서 백신화 운동이 시작된 이래 백신 1만 4천 회분이 공급되었

다. 조만간 백신 5600회분이 더 공급되고, 다음 주에는 9천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각 지방 보건소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호무토워 외래진료소에 접종소가 마련되었고, 마을들에는 이동진료차량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쇼핑센터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스톨리차' 쇼핑센터에 처음 개설되어 평일 15시-19시까지, 주말에는 10시-15시까지 접수한다. 이동접종차량은 승리광장, 사할린스카야 거리의 '메가베료즈카'쇼핑센터 인근에서 접종을 실시하는데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분증, 의료보험증, 개인 의료보험의 등록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에게 백신 접종은 무료로 보급되며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국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지역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1-300번 누르고 추가로 10번을 눌러 전화해서 예약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단신

사할린 입도시 디지털 패스 및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필요없다

해당 지침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서명했다. 1월 27일부터 지침 사항이 발효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는 이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제한이 해제되었다.

"제한 해제는 감염 확산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점에서 이뤄진 조치다. 따라서 사할린주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주민 대상 대규모 백신화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해진 단계이다."라고 주지사가 설명했다.

사할린 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자녀 가정에 새 주택을 공급하도록 보조금 지급

조만간 이런 목적으로 사할린주의 예비예산에서 약 8백만 루블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파마트나야 거리에 사는 자하르첸코 가족의 개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남아(4세)와 여아(8세)가 생명을 잃었고, 이 가족의 어머니와 장남(21세)은 안쿠지노와 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며 아들(14세), 딸(5세)가 지역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극심한 비극을 겪은 자하르첸코 가족에게는 각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지사의 지시로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1백만 루블리가 지급되었고, 임시로 가족이 거처할 공간이 제공된 상태이며 영구주택을 얻도록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 주민사회복지센터의 긴급사회봉사과에서는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한 의류, 신발, 생활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모으고 있다.

사할린 수산업체, 명태 18,754톤 어획

오호츠크해에서 러시아 어선들이 명태 14만1,500톤, 태평양 청어는 4만3천 톤, 대구는 1만3,200톤을 어획했다. 사할린주 선박들이 어획한 명태, 태평양 청어, 대구의 총어획량은 30,396톤에 달한다. 수산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주요 어종은 명태로 사할린의 오호토크모르스코이 원양어선들이 초기부터 18,754톤을 어획했다. 대구는 사할린의 수산업체들이 2,663톤을 어획, 지난해 유사시기 어획량보다 1,800톤이 줄었다. 청어는 8,979톤으로 지난해 수준에 비해 어획량은 약 2천 톤이 더 늘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

한민족문화 · 한국어 교육, 동포 위한 사업에 몰두

이진선 선생은 사할린한인 사회계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 다. 한평생 포로나이스크시에서 살아왔는데 몇 년 전에는 가족 사정으로 남편의 고향 홈스크시로 이사했다.

포로나이스크에는 지역박물관 부관장, 한때는 관장 대행을 역임했고 한인회 이사가 족담당자, 한민족 문화 및 한국어 강사로 활약했다.

그 이후에는 잠깐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문화센터 문화담당, 주 한인협회에서는 직무를 맡기도 했다.

2018년에는 홈스크로 이사하고 동포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우선 홈스크 한인회에서 한글학교 강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때 한글학교 강사를 맡았던 원어민 한국분이 여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인회에서는 꼭 한국어 선생을 필요로 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진선 선생은 수강생 모집에 나섰는데 50여 명이 신청을 했다.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자고 해서 사실 한인회 사무실을 교실로 쓰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 따라서 수강생들을 3-4그룹으로 나누어 하다 보니 거의 매일 출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에 학교 학생부터 50대 어른까지 신청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학습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글학교가 한국어 채택학



이진선 선생: 1962년생,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출신, 현대 인문아카데미(모스크바) 심리학과 졸업. 기혼. 아들 둘, 손자 2, 손녀 1.

교가 아니라서 수강생 중에는 나이, 생활경험, 지식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 선생은 현재 4년째 홈스크 한글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등급별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기초가 필요해서 초급반 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수강생들은 계속 열심히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수업도 빠지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서 한국어 수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학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요즘은 수강생 수도 좀 적어졌다. 학기 초기에는 3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현재 20-22명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최근에 어른들은 거의 아예 출석하지 않고 학교 학생들만 한국어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선 선생이 2주 전 주 코스차 학생과 새고려신문사를 방문(본지 2021년 1월15일호 기사)했을 때 말해주었다.

사실 한글학교에서 3년만 배운 학생이 KBS 체험수기 청소년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고, 또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2급을 따낸 것도 학생의 노력과 스승의 좋은 가르침 결과라고 본다.

이진선 선생이 주 코스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보고 학생이 선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은 학생의 장단점을 잘 알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잘 느껴졌다. 다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이 느껴졌다. 이 선생은 학생들을 잘 알고 그들에게 맞추어 경연 제안을 한다.

10년이 훨씬 더 되는 이야기인데 포로나이스크에서 한국어에 관심 보인 고등학생인 이 왜체슬람이 그 당시 반년도 한국어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진선 선생의 권고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 그 이후에는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하고 사할린 국립대를 졸업한 후 동양갑나지마 한국어 교사로 활약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진선 선생의 제자는 유지나 스베틀라이다. 그녀는 이 선생에게서 2년 쯤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한국으로 떠났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학 서류

등 준비를 바로 이진선 선생이 도왔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스베틀라나는 현재는 K-pop 가수 라나(LANA)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선 선생은 이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자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

사할린동포 역사와 현대 상황 등을 잘 아는 이진선 선생은 한글학교 교사로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홈스크에서 개최하는 <한 가정에서>축제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포자르스코예(미주호)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현장 안내석판 설치에 한인회 측담당을 맡았고 설날잔치 등,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홈스크 한인회는 지방한인회 중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이다. 단점으로는 청년들이 한인회에 잘 유치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이진선 선생의 제자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본다. 요즘은 여러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함께 하려고 한다.

사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해 일이 이 선생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 외 작년에 이진선 선생은 사할린 청소년역사 캠프의 한 교육자로 활동했다. 이진선 선생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기 좋아하고, 이들과 함께 항상 배우고 있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배순신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소식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경기 개최

지난 2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중환) 주최, 사할린주 체스연합회의 협력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체스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경기에는 22명이 참가했는데 경기 결과 일반 그룹에서 1등은 석 콘스탄틴, 2등은 이 위탈리(이기수), 3 등은 덴(정) 드미트리가 차지했다. 여성그룹에서는 박 소피아가 1위를 차지했고 학생 그룹에서는 강 막심과 신 알베르트가 우승했다. 베테랑 참가자 중에는 김석강 씨가 우승했다. 수상자 모두가 증서와 메달, 그리고 상금을 받았다.

노인정 할머니들에게 식품세트 전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음력설을 앞두고 노인정 어르신 35분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한인회 회원들과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선물세트를 나누기로 했다.



지난 27일(월) 시한인회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쌀, 식용유(식물성 기름), 육류 통조림 등을 포함한 식품세트를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중환 회장은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준 안영수 노인회 회장과 윤경옥과 최상두 씨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5시반쯤 본지 애독자인 전체련 어르신(1931년생)이 본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로부터 선물을 잘 받았으며 노인정 할머니들을 대표해서 시한인회가 항상 배려해주고 챙겨주신 데 대해 림중환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음력설을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본사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개최된 첫 드리프트 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 달녜에 마을 얼음 호수 위에서 사상 처음 <뜨거운 얼음> 드리프트(미끄러지는 자동차를 조정하는 기술)경기가 개최되었다. 드리프트 경기에는 후륜 구동 차량만 참가했다. 조정사들은 빙판 위 코스에서 드리프트 기술로 경쟁하며 코너 회전에서 놀라운 실력들을 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사할린주에서 드리프트 연맹은 최근에 스포츠 종목으로 등록되었다. 이번 대회는 이 종목의 첫 주내 선수권 대회이다. 조종사들을 아마추어라 할 수 없는 것은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 각자 특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드리프트 스포츠 전문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단체 관련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체르니코브가 말했다.

경기 당일 화창한 날씨도 참가자들을 한몫 도왔고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에 오는 것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몇 가지 평가 기준 - 코스 통과 시 효율성, 코너와 곡선 드리프트,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와 속도 - 으로 선수들을 평가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пер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дрифту

На льду озера села Дальне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дрифту «Горячий лед».

В дрифте участвовали только автомобили с задним приводом. Пилот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рителям настоящие чудеса на виражах, соревнуясь в мастерстве управляемого заноса на ледяной трассе.

— Федерацию дрифтинг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Это первый област-

ной чемпионат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 рас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Черников. — Пилотов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любителями,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аждый из них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ьную лицензию, так что можно смел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он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Погода была благосклонна к участникам — день выдался солнечны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добраться, зрителей было много. Жюри оценивало спортсменов по нескольким критериям: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трассы, углы и траектория заноса, скорость и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세계 눈의 날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가족 릴레이 경기 펼쳐다

1월24일(일) 세계 눈의 날의 일환으로 코르사코프의 문화 휴식공원에서 코르사코프시 지역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즐거운 출발>행사가 펼쳐졌다. 유치원들에서 1팀에 엄마, 아빠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10팀이 기민성과 정확성과 힘으로 놀이에서 경쟁을 했다. 처음 즉흥 경기장에 나선 것은 유아들로 이들은 막대공을 몰며 여러 색의 원뿔 사이로 달려 돌아와야 했다. 동시에 엄마들은 정확성을 요하는 링 던지기에서 경쟁했고, 아빠들은 발을 힘차게 굴러 썰매를 타는 경기를 치렀다.

가장 볼 만하고 즐거운 경기는 온 가족이 참가하는 경기였다. 아이와 엄마가 각각 손과 아동 눈삽으로 공을 주고 받으며, 아빠는 다리 사이에 공을 끼고 뛰어서 코스를 돌았다.

마지막 경기는 모두 함께 중국 젓가락으로 자기 바구니에 가능한 많은 공을 넣으려고 애쓰며 경쟁했다. 끈질기고 치열하면서도 우호적인 경기에서 제7호 유치원의 두비코브 가족이 우승했다. 2위는 유르첸코 가족, 3위는 제25호 유치원을

대표한 갈추크 가족이 차지했다. 이날 패배한 가족은 없었다. 행사 참가자들 모두 친밀하게 자신의 팀을 응원하고 경쟁자들도 지지해 주며 유쾌한 기분과 활기로 크게 충전되었다.

경기를 치르는 중간 휴식시간에는 과자와 뜨거운 차를 마시며 힘을 보충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우승팀에게 메달과 상장을 수여하고 이날 가족 릴레이 경기에 참가한 모든 가족들에게 참가상을 수여했다.

Семейная эстафета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го дня снега прошла на Сахалине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го дня снега прошл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24 января. Команды десяти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стоящие из мамы, папы и одного ребенк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ловкости, меткости и силе.

Первыми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ую арену вышли малыши. Им предстояло змейкой провести мяч клюшкой между разноцветными конусами до отметки и обратно. В это же время мам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меткости в бросках колец на игровой щит, а папы — в силе, перетягивая сани, отталкиваясь ногами от земли.

Самыми зрелищными и веселыми получились конкурсы,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а вся семья. Ребятишки и мамы переносили мячи в руках и на детских снеговых лопатках, а папы — зажав коленями, в прыжках. В последнем испытании все вместе старались собрать в свои корзин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шариков «китайскими палочками».

В ходе упорной, бескомпромиссной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ружеской борьбы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команда семьи Дубиковых из детсада № 7.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семья Юрченко,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семья Кальчук,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детский сад № 25.

(8면에 계속)

예술의 훌륭한 종합적 조화로 감동시킨 〈에트노스〉의 공연

지난 22일(금) 저녁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 영화 상영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아.워로호와)의 한민족예술과 개설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시대의 반영〉프로그램은 영상예술과 공연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 첫 순간부터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술 공연으로 빠져들게 했다.

영상으로 〈에트노스〉의 한민족예술과에 대한 짧은 소개를 시작으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스크린의 화려한 영상의 빛 아래 북춤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용, 음악, 한국 전통 타악기, 아름다운 민족 의상, 조명, 음악에 맞추어 변하는 스크린 영상을 배경으로 완성도 높은 조화를 이루어낸 공연은 물흐르듯 빈틈이 없고, 화려하고 풍부하여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이 공연 프로그램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한국 민족 전통의 역사를 현대 예술에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반영된 예술의 미를 보여주었다. 공연 순서 안내와 설명 없이 하나의 공연이 끝나면 잠시 어두운 무대를 뚫고 새로운 무대가 펼쳐져 공연은 역동적으로 이어졌고 한 음악이 자연스럽게 다른 음악으로 바뀌었다.

신 율리아 한민족예술과 과장에 따르면 전통음악만이 아닌 전통이 담겨 있으면서도 현대에 맞추어진 한민족과 25주년 기념 공연을 2년 전에 열기로 했었다. 그 동안 신 과장을 비롯해 한민족과 모든 교사들은 음악, 무용 등에 대해 검색과 아이디어를 찾기에 나섰다.

예를 들어, 가야금 공연은 역동적인 상모돌리기와 신나는 브레이크댄스 팀의 춤과 잘 어우러졌고, 단소 팀은 〈단 한 사람〉노래를 연주하고 거기에 가장과 무대 뒤 우아한 무용이 조화를 이루어 노래의 감흥을 살려주었다.

이 공연을 위해 지난 여름에는 전문 촬영가와 시나리오 작가를 초대하여 학교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공연 프로그램은 1년간 연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기간 동안 제대로 연습하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었고 공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연출도 계속 바뀌기도 했다.

이런 공연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한민족과 교사들과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무용단들 〈도라지〉, 〈아리랑〉(지도 김 예브게니야), 〈민들레〉(지도 최경순), 〈희망〉(지도 김 안나), 현대댄스팀 "KGD", 타악기 팀들 〈고려〉, 〈불꽃놀이〉, 태양(지도 신 율리아), 가야금악단 〈파견〉(지도 체오(조) 나탈리아), 단소팀 〈영감〉(지도 박완순)은 전통과 현대를 잘 반영하여 공연을 펼친 이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훌륭한 실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새 의상도 일부 구입했고, 일부는 직접 제작했고 새로운 연출 소품들(꽃, 종이등, 스카프 등)을 만들기도 했다.

공연이 있는 후 공식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에트노스〉학교 안나 워로호와 교장은



우선 한민족예술과 창설에 나선 〈에트노스〉의 나탈리아 에이지노와 초대 교장선생과 김순남 한민족과 초대 과장, 그리고 이미 은퇴한 첫 교사 중 한 분 이정자 씨(무용, 타악기)를 소개해 관객석에서 갈채가 터졌다.

이날 논나 라브리크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장 세르게이 드미트리예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리국 국장 이리나 게라시모와 등이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민족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축하하며 표창장, 감사장, 선물로 포상했다.

끊임없이 성장에 목마르고, 도전과 성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 예술과의 다음 공연이 벌써 기대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컴퓨터 키보드 키 탑 위에 「조선글과 한글」로 북·남이 함께 놓은 통일의 징검다리 「한겨레 통일 표준글 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통일 컴퓨터 드라이브 자격」 개발을 중심으로

(전호의 계속)

- 북·남 간 접촉과 공동연구 -

●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민간자격 「통일 컴퓨터드라이브 자격」 연구 개발의 계기

조 박사는 젊은 시절 미군 기관에서 타자기(Typewriter Keyboard)와 키 펀치(key punch)(천공 카드(穿孔-, punched card)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규칙에 따라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종이 카드로서 초기의 저장매체. 천공 위치에 구멍을 뚫거나 뚫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비트를 나타낼 수 있다. 초기의 디지털 컴퓨터는 천공 카드를 키펀치 기기에 대한 오프라인 자료 기입을 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위한 주된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일부 투표 기기에서는 천공 카드를 사용하였다. 표준 천공 카드의 크기는 가로 187.32mm, 세로 82.5mm이며, 천공 위치는 가로 80자리, 세로 12자리가 있다)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경험으로 컴퓨터(IBM과 INIVAC1005)를 처음 접한 경험이 있었다. 이때부터 타자기 글자판·컴퓨터 글자판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이후 여자 상업 고등학교 타자 교사로 재직 당시 최초로 타자기·컴퓨터 글자판 교육의 이론과 실기를 미국 UCLA 교수로 타자기 글자판(Typewriter Keyboard)·컴퓨터 글자판(Computer Keyboard) 교육의 대가이신 Lawrance W. Erickson 박사(20th Century Typewriting의 저자)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전수 받고 최초로 《타자기술개발과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일 이 논문이 통일시대에 사용될 통신기기인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통일 컴퓨터드라이브자격〉을 북과 함께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북과 공동 연구 과정

2000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평화 공동선언」으로 열여섯던 북·남 교류가 화해의 문이 열리면서 활성화되던 시절 조 박사는 북측의 평양교육성 산하 삼흥지적자원교류소(당시 교육정보센터(소장 이수락박사(김책공대 출신))를 파트너로 삼아 통일시대에 사용될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 공동 연구 합의를 당국의 승인 아래 평양을 넘나들며 여러 차례의 교류와 동시에 서신 접촉과 회합을 개성과 금강산, 중국의 심양과 베이징에서 갖기도 했었다. 초기에는 북측의 민족화해협력단체 산하인 〈육일오펜집사 대표 홍기풍〉과 합의 서명을 하였으나, 그 이후 북측이 협상 창구를 〈평양 교육성 삼흥지적자원교류소(당시 교육정보센터)〉로 변경하였다. 또한 동시에 한글권인 중국 조선어 정보학회(회장 현웅운)와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2003년 12월 24일 북·남 언어정보산업 표준화에 관한 학술대회를 베이징 우의빈관에서 〈일본 조총련 과학협의회〉가 북·남 IT용어와 산업 표준화 Workshop을 개최하는데 이 회의에 조 박사는 북·남 IT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한겨레통일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민간 기술자격 「통일컴퓨터 드라이브자격」도 규정을 통일하여 북·남이 함께 시행할 어젠다를 발표하고 2005-6년에는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규정을 통일하여 북·남이 함께 시행할 「통일 컴퓨터

드라이브자격」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2003년 통일 IT 포럼에 발표한 어젠다가 2003-6년 사이 북·남이 공동 시행하는 연구와 합의가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북·남 공동연구 내용

※ 입력 속도, 오타율, 피로도, 학습곡선의 상승 등을 목표

※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 오타의 최소화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

2005년 7월 15일 중국 심양 상무 호텔에서 북·남 동시에 제안한 이 프로젝트를 북측이 8개월간 북·남 「조선글」·「한글」찾기 조사 등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의 통계처리에 바탕을 토대로 발명한 〈연구보문〉통신단말기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안)」과 「북: 전자문서원 · 남: 문서실무사와 「통일 컴퓨터드라이브자격」 양성교육에 관한 〈분석보고서〉」을 북측으로부터 남측으로 넘겨주면서 시행 준비(남측 특허청에 기술특허, 상표 등록, 시제품 키보드 제작과 OS 개발 준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총결산하였다.

그 이후 조 박사는 2000년 4월 19일 금강산 호텔에서 북·남이 총결산한 합의에 따라 「한겨레 통일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를 특허청에 기술특허와 상표등록을 마치고 글자판 제작과 운영체제(OS)를 남측이 사용하는 윈도우(Windows)와 북측이 사용하는 리눅스(Linux)에 사용될 툴(Tool)을 제작 중이고 「통일 컴퓨터드라이브자격」은 과거 정통부에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국가공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의 구성

평양 교육성 삼흥지적자원교류소에서 철저히 분석한 조선글·한글 찾기 조사 등 과학적인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구현한 「한겨레 통일 표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은 한마디로 통일시대에 사용될 글자판 배열이다. 글자판 구성의 자·모 배열에서 자음은 북측의 국가규격 배열을 기준으로 하고 모음은 남측의 국가 표준글자판 규격인 2벌식 배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위치는 사용 빈도의 통계와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분석한 바탕을 준용하여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2-3벌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키 탑(key top) 위에 「조선글」과 「한글」을 배열하고 「사용자 정의 글자판」 기능을 함께 배열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의 장점은

1.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를 통하여 통일시대에 사용하도록 북·남이 발명하였다.

2. 「한겨레 통일 표준글자판을 갖는 단말기」 배열의 과학화로 사용 빈도에 따라 키 탑(key top) 위에 북측의 「조선글」, 남측의 「한글」의 찾기 조사를 통해 자·모를 양손이 균형을 이루어 퀵-스냅-스트로킹(Quick-Snap-Stroking) 리듬이 이루어지도록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정보관리협회 제공)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де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школы "Этнос"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Отде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сцене ККЗ "Октябрь".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поздравл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ультурной общности и выпускники прошлых лет.

От лиц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здрав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Ирина Герасимова, поблагодарив коллективы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за прекрас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скрытия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педагогов и учащихся.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в "Этносе" обучаются 120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4,5 до 17 лет. Восем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еализу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общеразвивающую программу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ключающую 13 учебных предметов.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не только изучают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но и учатся играть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таких как дансо, каягым,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удар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осваив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За 25 лет создана собственна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база,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разработано свыше 20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создан электронный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собрана фонотека аудио- и видеозапис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музыки и танцев.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и реализации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приобретено 87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около 120 национальных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 Благодаря "Этносу" я поняла, что такое настоящая дружба. Также школа дала мн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себя настоящую. Я знала, что я кореянка, но я не понимала в полной мере, что такое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озволило мне на новом уровне проникнуться этой культурой и ее традициями,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щаяся школы "Этнос" О Хи Сен.

Программа концерта порадовала зрителей ярким необычным сочетанием и смешением танцев, музыки,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ритмов, прекрас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костюмами, завораживающей атмосферой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 помощью танцев и музыки гости вечера смогл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очувств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лорит традиций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Коре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Россия потеряла выдающегося учёног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3)

Подсчитано, что рынок комплектующих сверхточ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х приборов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более 30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Или наши сверхъёмкие элементы памяти. Что бы не придумывали и сейчас, и в будущем — лучше ничего не придумаешь. Мы можем, например, всю библиотеку Ленина загнать в размер вашего плеера.

В общем, это техн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орыв. Это технологии даже не XXI, а XXII века!

Приоритет отдам России

— Скажите, а как за рубежом обстоят дела по этой части? Неужели они не работали?

— Сотни, если не тысячи институтов за рубежом работал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Я нанял несколько патентных фирм, они провели поиск по всем ведущим странам. Здесь бы я хотел выразить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Олегу Киму из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который оплатил очень значительные суммы за договора с патентными фирмами. Близко подходили японцы, американцы. Но суть они не уловили. В истории техники так бывает, когда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нескольких местах подходят к одному решению. Я даже думаю, что однажды они проснутся, станут не с той ноги и вдруг поймут: «Боже, ведь это так просто!» Поэтому я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пустил около 10 блоков патентов. Поскольку они находятся еще на стадии регистрации, мне бы не хотелось много говорить о них. И так уже, сколько не скрывать, информация просачивается. Два тома моих работ вышли в Нью-Йорке, старейшее королев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Brill» в Европе (Голландия) опубликовало избранные мои труды на 500 страницах. Ряд швейцарских фирм предложили свои услуги и готовы проплатить дальнейшую защиту патент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готовы профинансир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обще предложили дальнейшую раскрутку. Но я,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сделаю в России. Приоритет отдам России. Здесь тоже ес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едомства, бизнесмены.

— Наук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разные вещи, каждая нуждается в лидерах своего склада. Сумеете ли Вы, академик, занимать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оизводства?

— Для меня это знакомое дело,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около 10 лет занимался бизнесом, был президенто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биржи АО МБП, у меня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 собственный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фольгоизола. К тому же я нашел понимание и мощную поддержку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удем поднимать заводы, налаживать запущенные, нерентабе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выпуску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ажно, что для этого не требуется коренной перестройки поточных линий, станочного парка и т.д. Уже дано задание срочно подобрать команду крепки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определить нача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К концу года должна пойти продукция...

Еще недавно нам говорили — 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ике вы отстали навсегда. Наши изобретения переключают всю мировую микро- и макроэлектронику и позволят подняться на несколько порядков выше Запада. Ну а Запад пусть приобщается, мы поможем.

За научные открытия и достижения Броня Цой награжден тремя серебряными и двумя золотыми медалями лауреата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етра Леонидовича Капицы и медалью Конрада Рентгена Европейской академи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2002-2003 гг.).

За развитие н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науке о прочности: физике пучков и многоэлементных структур и за монографию «Структур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кинетика разрушения полимеров» Б. Цою, Э.М. Карташову и В.В. Шевелеву присуждено звание лауре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ВО СЛАВУ И ПОЛЬЗУ ОТ ЕСТЕСТВА».

ЭДУАРД КАРТАШОВ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науки РФ, почетный работник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доктор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высшей и прикладной математики, декан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ИТХТ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Я знаю Броню Цоя, когда он еще работал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в Душанб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физиче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в лаборатории физики прочности полимеров Бахрулло Нарзулаевича Нарзулаева. Еще тогда я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молод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тора, чьи работы отличались большой

сложностью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очностью и глубиной самой постановки с другой.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он проводил эксперименты, варьируя температурный режим порой в доли градус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кривые. Я тогда еще поразился, как мож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такие тонкие задачи. Это было мое перв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Цоем.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много лет, но все эти годы мы как-то поддерживали связи, потому что с тех самых пор он вызывал у меня вполне определенные симпатии, не только как совершенно великолепный экспериментатор, но и как человек оригинального мышления всего того, что касается физики прочности. Как-то та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я всю жизнь отслеживаю таких незаурядных людей. У меня с Цоем образова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е контакты, он стал мне очень симпатичен, я стал следить за ним, стал кем-то вроде консультанта.

Где-то в середине 90-х годов он оказался в Москве, и я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им задачу. А в те годы он отошел от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нимался другими делами. И мне было очень досадно, что теряется такой незаурядный ум, накопивши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огромный научный потенциал в виде прекрасных публикаций.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он пережил страшную автомобильную катастрофу, был парализован в одно время, почти потерял слух, зрение, я посещал его в больнице, видел все это. Но это человек железной воли и выдержки, он сумел подняться и пойти. Я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им задачу потихонечку раскручивать обороты и начинать вновь набирать научную форму.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в науку произошло совершенно фантастически. Феерически.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он издает две совершенно великолепные монографии, вновь входит в те идеи, в те достижения, которые у него были ранее, готовит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мы работали уже втроем — Б. Цой, В.Шевелев (мой ученик, профессор) и я. В 2000 г. он блестяще защищает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Это вообще была одна из лучших работ за тот год.

В 2002 г. у нас вышл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ая работа «Структур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кинетика разрушения полимеров», которая открывал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е положения.

Его открытия очень серьезны. Они позволяют получать изделия из полим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 совершенно фантастическими свойствами. Они сверхпрочные, обладают сверхпроводимостью в смысле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тока и магнитных полей и другими сверх свойствами. Компьютеры, телевизоры и т.п. приборы будут с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на несколько порядков выше, чем нынешние.

Что бы я хотел в нем отметить и подчеркнуть. Во-первых, этот человек обладает совершенно потрясающей интуицией. Физической интуицией. Во-вторых, у него великолепный слог, четкий логически выверенный научный слог. В-третьих, он невероятно трудоспособен.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за компьютером до утра, и мышление у него остается таким же четким, как и днем. В-четвертых, он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он никогда не подводит. Ему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один раз и уже можно не напоминать. В-пятых, это человек глубокой внутренней культуры, я давно не встречал людей с таким трепетным отношением к своим друзьям. В нелегкие времена он личн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ходил к нам с помощью, поддержкой.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удивительный товарищ. Вообще я должен сказать — это человек следящего века.

— Эдуард Михайлович, как встретили столичные ученые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пришельца?

— Хороший вопрос. Отличитель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наших полимерщиков является нетерпимость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ругих школ. 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ни по книгам Цоя вскоре начали читать свои лекции. Он легко вошел в научную элиту Москвы, его избрали академиком, профессором, ст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офессором. Он меня тоже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оражает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ю, умением себя поставить.

— Много ли у нас ученых, сделавших 4-5 открытий?

— Цой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России.

— Чем это ему грозит?

— Тоже хороший вопрос. Каждый ученый мечтает, чтобы его труд был оценен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Конечно,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чтобы Цой получ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емию или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Это как минимум.

Вообще об этом человеке надо больше говорить и писать. Надо, чтобы люди знали, что у нас в России есть вот такие личности.

Валентин Цой, Валентин Чен
Москва, 2005 - 2021 гг.
(Источник: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создадут 250 прививочных цент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отовится к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COVID-19, приступив к открытию 250 прививочных центр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в страну будет ввезено 50 тыс. доз вакцины через COVAX, механизм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званный гарантировать равный доступ к вакцинам.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это будет вакцина от Pfizer,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особых условий хранения. При выборе объектов под открытие прививочных центров предъявляются строгие требования. Объект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на балансе государства.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допускаются только закрытые помещения с есте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ей, что исключает подв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Спецхолодильник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наличие автономных электрогенераторов. Кроме того, требу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и близости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я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150 мест. Дл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250 центров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5.500 специалистов, если учитывать, что в сутки будут прививаться по 600 человек на каждом объекте. Между тем,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вон Док Чхоль заявил, что да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на 70% не решает проблему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этому приоритетной целью всё ещё остаётся минимизация числа заражений и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больных в кр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Япония опровергла сообщения об отмен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Япония опровергла сообщения СМИ об отмен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еренесённых на июль, а также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ройти в сентябре. Оба мероприятия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й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 их отложи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Манабу Сака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верг сообщение британской газеты Times, заяви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ится к Играм. Он добавил, что Токи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подготовку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поводу Игр н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Он также опроверг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Япония может попытаться провести игры в 2032 году. Министр по проведению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Сейко Хасимото также пообещала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бои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этим летом.

Силовые министры представил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21 января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иловые министры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х работы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ан Гён Х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её ведомство будет стараться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 том числе,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ов двух стран, чтобы согласовать стратегию содействия возобновлению диалога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екином по поводу визита в Сеул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а также с Токио по ряду двусторонних проблем.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о Ук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работать над организацией регулярных воен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Севером, ускорением передачи от Вашингтона Сеулу опе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и укреплении обороны в интересах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Ли Ин Ён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тифик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дписанного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Другие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евером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линий связи, организация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Asiana Airlines выполнит беспосадоч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лёт над Японией

20 января в Asiana Airlines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выполн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еспосадоч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лёт над Японией. Он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на самолёте A380, называемом «Отель в небе». 31 января в 13:00 авиалайнер вылетит 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Он пролетит над Пусаном, Японским городом Миядза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стровом Чечжудо и вернётся в 16:20. Пассажиры данного рейса могут покупать беспошлинные товары в пределах 600 долларов через магазины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на борту самолё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и в городских отделениях. В случае с магазином на борту, заказ нужно оформить заранее по интернету. Заполняемость самолё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аранти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Бортовое питание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е будет.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варьируется от 250.000 до 450.000 вон (220-400 доллар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ласса обслуживания. Asiana Airlines впервые выполнила подобный полёт над Японией 12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о затем отменила три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ейса из-за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RKI)

Новости ЮСМООК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Активис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одготовили и распространили 35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подопечных бабушек. В этот раз решили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и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Руководство ЮСМООК благодарит спонсоров з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 всех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Анатолия Ивановича Ан Ен Су, Ольгу Юрьевну Ю Кен Ок и Александра Дмитриевича Че Сан Ду, за оператив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го доброго дела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Состоялся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ЮСМООК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ОО Шахмат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а очередной ежегодный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урнира дипломы, медали и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завоевали:

1. Сек Константин Хакпингвич
 2. Виталий И Ги Су
 3. Ден Дмитрий Сергеевич
 4. Сергей И Ен Бок
 5. Син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 Ветеранский приз достался Владимиру Ким Сок Кан. Приз среди женщин - школьнице Пак Софы Енхаковне. Призы школьников завоевали - Кан Максим Владимирович и Син Альберт Викторович. Поздравляем всех 22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и призеров.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ЮСМООК

Бейк Ку Сен: сначала мы россияне, а потом —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Бейк Ку Сёну 23 января исполнилось 70 лет. В связи с юбилеем он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20 ле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лужбы в 1994 году я не планировал занимать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Думал пожить для себя, организовал фирму, —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ДВС),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 Но всё изменила одна встреча в аэропорту с моим одноклассником, депутатом трех созыв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Он попросил меня заняться об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ньше их было много, каждая со своим флагом.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б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я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единую структуру, чтобы легче было работать. Моя иде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с ротацией раз в полгода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Через год пришли к решению создать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И хотя мы, в основном, работаем в границах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уществование та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ажно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КНДР, когда мы представляем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еня выбрали президентом эт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с тех пор я им руковожу.

Меня самого волновало не только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общены. Хотелось разобраться: как они вживаются в новые реалии постсовет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а это ведь было начало 90-х годов. Я понял, что все они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них считает себя, прежде всего, ее гражданами, а потом уже корейцам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стали строить свою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которую ведем двенадцатый год.

— На какую аудиторию ориентируетесь?
— В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реди них — молодежная «Корё», общество разрозненных семей, которое работает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Seriously работаем со студенческой молодежью, которая изуч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нимается корееведением.

Наш приоритет —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другими культурами. В «чистом» виде ничег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владеет родным языком. Свою культуру они постигают через русский язык. В то же время сегодня в Хабаровске созд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пример, в гимназии № 4, № 8, школе № 77 осваив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стандарту. Выпускники могут сдавать ЕГЭ, выбра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 Каков, может, главный итог этих лет?
— Удалось вовлечь людей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ыло немало пессимистов. Вот такой штрих: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не хотели выступ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дежде, а сегодн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е хватает костюмов! Но при этом молодые люди четко знают, что они россия-



не и должны заботиться и о сох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и об укрепл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к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ходящая в Ассамблею народо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мы плотно контактируем с городским и крае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Не делим на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важные. Наши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синтеза культур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гранты. Например,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проект по приклад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 Наверное, не всё сразу получалось?
— В самом начале попросту не знал, как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ластных структур края, города и т. д. Есть особая культур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воего рода алгоритм такого общения. Мне повезло: мы делали акцент на культуру, поэт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приходилось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края. Вс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Хабаровска и края находятся под «крылом» э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с вели и поддерживали Лариса Георгиевна Барышева, Раиса Георгиевна Байкова, Александр Вячеславович Федосов.

— Это ведь не единственные ваш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 В ассамблее у нас все болеют за дело. В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тоже все откликаются. Достаточно вспомнить проект «Кухня без границ», в котором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молодые члены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недель они выступали с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оказ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рассказам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Сложно ли найт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 Сейчас очень помогают гранты. Самое ценное в них — то, что над проектом работает целая команда: со своими генераторами идей, исполнителями,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за финансов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В качестве спонсоров нередко выступают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Но мы получаем от них не деньги, а подарки и сувениры, которы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дарим людям. Нам много и безвозмездно помогают «Мир посуды», торговая сеть магазинов «Энка» и други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7 странице)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лучших студентов.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бят поздравил зампред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 Ребята, сегодня у вас особенный день —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молодости, больших надежд и ожиданий! Мы очень вами гордимся. Вы добиваетес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Более четырехсот наши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являю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х науч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конкурсов,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ёжи. Островитя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упить на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получить именные стипендии и преми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ьшим пакетом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в том числ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Перед началом церемонии к студентам также обрат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н поздравил молодых людей,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важных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развивают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 конкурс «Студент года»,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и различные форумы.

— Вы участвуете и помогает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акже с достоинством представляете регион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за что мы говорим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Я убежден, что именно в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создается основа вашей карьеры, успешной жизни. Надеюсь, что впереди вас ждут только победы и новые открытия. С праздником, — обратился к студентам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180 человек. Студентам, которые отменно показали себя в спорте, науке и творчестве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х удостоились около 30 сахалинцев. Так,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 Ярослав Новиков — студент 3 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Я являюсь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юнармейцев и членом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сельской молодежи.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ю в военных парад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Вместе с товарищами помогаем ветерану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бытовых вопросах. Получить грамоту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 это вдохновляет добиваться новых целей, — рассказал студент.

Заверши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концертом россий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Dabro». Музыканты из Казани, братья Иван и Михаил Засидкевичи прославились в 2020 году с песней «Юность». Они исполнили эту и другие композиции, а в завершении концерта вручили подарок победительнице розыгрыш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Южно-сахалинка Анастасия Кирюшкина получила толстовку с названием группы из рук вокалисто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смягчении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желанию из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 работу теперь могут выйт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а также те, кто имеет серьезные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в офис и у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трудятся удаленно. Для этого всем и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 добровольном порядке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Человек вправе не прививаться и оставаться по-прежнему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электрон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 получить документ можно буде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Пожилым людям, не владеющим цифр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распечатать его помогут сотрудники МФЦ и цент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оступа,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библиотеках области. Это документ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носи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Сертификат вместе с цифровым пропуском смогут предъявлять приезж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гости региона. Для этих целей по-прежнему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результаты лаборато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COVID-19, представляя их вместе с пропуском.

Напомни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начал вакцинацию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ещ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вивк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обровольная и бесплатная. Записать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ли обратившись напрямую в регистратуру поликлиники. Еще один способ — позвонить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добавочный 10).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н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ледовой аре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ПАО «Газпром». Детали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обсудили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Рабочее совещ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 С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 у нас налажены самые тесные связи. И эти важ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 яркий пример наш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читаю очень справедливым, что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строит эти объ-

екты именно у нас — в месте, где добываются углеводороды. Наши жители достойны наилучших условий для жизни и отдых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и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Несомненно, они позволят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тренироваться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ом уровне, — заметил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и озвучены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будущих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Общая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составит почти 2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трибунах хватит места трем тысячам зрителей. Рядом построят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которого превысит 17,5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Он сможет принять до 800 зрителей. Оба объекта получат подземную парковку.

Самым крупным проектом станет ледовая арена. Её площадь — 2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бъект разместят в районе пересечения улиц Пушкина, Пограничной и Емельянова.

Посещать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могут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Кроме т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фисного и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школы, яслей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обустроят небольшой бассейн.

Сахалинцев проинформируют о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25 янва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которых социа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будет обзванивать робот. Жителям расскажут о том, когда и где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доставленную на берег рыбу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ли опер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25 января запускаем проект по автоматическому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жителей по телефону. Робот будет звонить пенсионерам, ветеранам и другим категориям льгот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м в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Аниве. С 26 января в этих городах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ый минтай и треску,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ван Радченко.

Охлаждённую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ую рыбу, доставленную напрямую с промысла компанией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жители юга острова. Поставки свежей рыбы по минимальным ценам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ой между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ыбодобывающим предприятием, а также рабо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 торг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операторами. Так, рыбодобыв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отпускает минтай по 5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треску — по 60. Розничные цены с учетом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варьируются: на минтай — от 55 до 85 рублей, треску от 78 до 90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езона асортимент рыбы будет меняться.

Вместе с тем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сахалинцев продолжа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вага, активный лов которой приходится на январь.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 акции, реализуя свежий улов по сниженной цене. Так, 19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ализовывалась навага колхоза «Дружба» по 55 рублей за 1 кг. А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рибой-Корсаков» недавно бесплатно передало 200 килограммов свежей наваги ветеран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Информ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цев о предстоящей продаже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будут за день. В перспективе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ятся и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направля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ля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авиаперевозок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Еще больш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авиабилеты по льготным тариф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мина 21 января - Росавиации выде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ля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авиаперевозок.

Как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ниженному тарифу перевезли более 500 тысяч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Сейчас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убсидиям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щё не менее 4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Цена билета на самолёт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составит от 8 до чуть более 10 тысяч рублей, — сообщил он.

В перечень субсидируем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йдет 21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й маршрут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России 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маршруты в Москву из Магад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абаров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Анадыря, Благовещенска, Мирного, Нерюнгри, Певека, Полярного, Улан-Удэ, Читы, Якутска, а такж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 Благовещен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Мирного,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а, Читы, Якутска.

—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авиаперевозок имеет большое соц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е менее важно, чтобы авиакомпания позаботилась о сервисе, и граждане, желающие приобрести авиабилеты по льготным тарифам, смогли сделать это быстро

и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Шахтерский дом-интернат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переедет в новый корпус в 2022 году

Соц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менил здание 50-х годов постройки прошлого века на новый просторный корпус. Там смогут принять 50 подопечных, сегод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местить только 30.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началось в апреле 2019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объект готов более чем на 50 процентов. Уже возведены несколько двухэтажных корпусов — спаль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й, лечебно- и учеб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а также одноэтажный пищеблок. Сейчас здание обшивают фасадом, ведется внутренняя отделка помещений и устройство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 Мы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ведем работу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обновлению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троящееся здание для дома-интерната в Шахтерске будет отвечать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для проживающих. При этом емкость учреждения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на 70 процен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Шахтерский дом-интернат работает с 1999 года. Соци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ка теснится в одноэтажном здании, которому уже более 60 лет. Новое здание возвод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ощадью более 1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спальном корпусе расположатся жилые комнаты на одного, двух и трех человек с санузлами и душевыми комнатами.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м блок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иблиотека с читальным залом и книгохранилищем, актовый зал, помещения для персонала,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холлы для отдыха, технические помещения. В пищеблоке разместятся обеденный зал на 30 мест, гардероб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кладовые, цеха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В социа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для подопечных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интересного и полезного досуга. Пожилые люди и инвалиды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 кружках, столойной и швейной мастерских, зале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и физиотерап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ризвали к участию в глобаль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егодня поздравил учащихся СахГУ с Днем студента и прочел им лекцию об эксперименте по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эксперимен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регион к 2025 году должен стать углеродно-нейтральным.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окращать выбросы и увеличивать их поглощение. Это важный про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в этом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С этой целью в Сахали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здаются компетенции, связанные с развитием науки о климате и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эксперимента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иводят к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ли их поглощению. Например, замещение угля газом в электро- и теплоснабжении дает сокращение парниковых выбросов в этом секторе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а энергогенерация на основе воды, ветра и солнца — нулевые выбросы.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интенс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а 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особо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ыбрали для эксперимента неслучайно. У региона изначально высокий потенциал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По оценкам 2018 года разница между выбросами и поглощением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была небольшой. Кроме того, принят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переводу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развитию водородн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реализации других проектов буд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развитие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выбросов. А создаваемая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и обраще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простимулирует внедрение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и экономить энергоресурсы.

— Работа по снижению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климат — это большие задачи для компаний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ы уже сейчас можете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этом, придя в наш клима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СахГУ. Все,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развитием сис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тоже могут себя попробовать. Мы готовы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различными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ностранными, привлекать 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 обуч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студентов. Главное, чтобы с вашей стороны был интерес, — обратилась к студентам врио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замп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вуза поздравили студентов, пожелав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и научной карьер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의 벚들두 개의 언어로 꿈꾸다

러시아 태생이지만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에바 씨는 한국인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양국에 소개하고 싶어 한다.

이에바 씨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 그녀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에는 그런 댓글이 몇 십 개 달린다. MBC 에브리원 퀴즈 예능 프로그램 <대한외국인>,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에바 씨는 사람들이 그녀가 러시아인임을 잊게 만든다.

하지만 두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게 가끔은 어떤 언어와도 편하지 않음을, 또 두 개의 문화에 익숙한 게 가끔은 어디에서도 고향을 갖지 못하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그걸 에바 씨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건 2017년 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처음으로 3분짜리 텍스트를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모르는 것처럼 느낀 멘봉의 순간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안 들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에바 씨는 피아노 강사로 한국에 초대된 어머니를 따라 처음 한국에 왔다. 에바 씨와 엄마가 살던 도시 카바로프스크의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일이 주선되었는데 한국인 교회를 다니던 외할머니를 통해 연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에바 씨는 반에서 유일한 외국인으로 경기도 의왕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저는 외국인이라기보다 외계인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기억을 되살렸다. 하지만 6년 후에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나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문화 충격을 경험한다.

쌍방향 문화 충격

문화와 언어의 교차 경험은 러시아 대학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면서 동시에 외대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할 때 정점에 달했다. "한국에서 너 달을 지내고 러시아로 가서 한 달을 지내곤 했어요. 러시아에 가면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였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늘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기억한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한동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좀 덜 예민해지고 새로운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 거 같아요."

2015년에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에바 씨는 이전에 같은 반 학생이었던 남자와 결혼해 그의 성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한 건 편의 때문이었다. 그녀의 원래 성은 코노노바였고 사람들이 의도적이 아니어도 이상하고 별난 이름으로 불려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한국 이름이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잠시 애길 나누다 보면 그녀가 옆집에 사는 젊은 여

자 같기 때문이다. 에바 씨는 인기 있는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구대장 뽕뽕이>를 보며 자랐고, 남자 친구가 2년간 군복무를 하는 동안 변함없이 기다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 친구가 서울 외곽의 남양주에서 복무했다고 하면서,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전화도 할 수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라고 했다. 많은 한국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 말할 때 정색을 하며 장난스럽게 말하듯 그녀도 "그렇게 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자주 보는 거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부부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에바 씨는 종종 남편에게 나가서 운동을 하든 뭐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한다.

팬데믹이 아니라면 에바 씨는 아마도 국제 교류와 관계된 일을 하면서 좀 더 바쁘게 지낼 것이다. 현재 국제 행사가 거의 치러지지 않아서 그녀는 번역일을 좀 더 하고 있다. 통역은 수정하거나 실수를 고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느낀다. "끝나고 나면 기분은 좋지만 웬지 공허하기도 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번역할 때는 마감을 지키고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고요. 나중에 내가 한 작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 있어 좋아요."

궁극적으로 에바 씨는 문학 번역을 하고 싶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고, 언젠가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번역하고 러시아 소설도 한국에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 분야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두 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에바 씨는 한국어와 러시아 둘 다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쌍방향으로 통역과 번역을 한다. 에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살았으니 아마도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라고 말한다.

언어 유창성

통역과 번역이 자신에게 성취감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에바 씨를 대중에게 알린 건 방송이었다. 사실 그녀가 언어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원래 갖고 있던 꿈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 TV에 얼굴을 알린 건 언어 퀴즈쇼인 <우리말 겨루기>에서였다. 다른 외국인과 겨루어 일등을 차지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TV조선의 <광화문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로 일했다. 제목과 달리 그녀는 서울 시내를 탐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지역 음식을 소개하고 나중에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식이었다.

"문어를 잡거나 빵집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거나 하는 아주 힘든 노동을 했어요. 벼를 심는 것 같은 한국적인 경험도 했구요." 라고 에바 씨는 그 시간을 떠올렸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일들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상어와 함께 다이빙하기였다.

한국은 크기에 비해 다양한 특색의 지역들이 있으며, "우리가 늑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늑대가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외에도 그녀는 텔레비전에서는 누구나 좀 더 활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아침 방송 리포터로서 명랑 쾌활하고 에너지를 뿜어내야 함을 알게 된 거였다. "제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좀 더 '연기'를 해야 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런 경험과 자신의 언어 능력 때문에 에바 씨는 단순히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한국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텔레비전에 외국인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시청자들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거 외에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기회가 주어져요.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고 물론 고맙게 생각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가끔 너무 유창하지 않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귀여운데 실수를 하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발음이 좀 별나거나 하면 사람들은 더 즐거워하는 거 같아요." 결국 방송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이다.

에바 씨는 "방송에서 계속 일하려면 노력을 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에바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녀를 하나의 '캐릭터'로 생각한다. 즉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외국인 캐릭터인 것이다. 이게 짐을 덜어주긴 한다. "사람들은 제가 아주 머리가 좋고 생각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거랑 머리가 좋은 건 서로 다른 거죠.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를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나 전통에 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저에게 부족한 면을 메워 나가



려고 해요."라고 그녀는 다짐한다.

틈을 메꾸다

에바 씨는 여전히 프로그램 진행자를 꿈꾸지만 지금은 진입 장벽이 낮고 제약이 적으면서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유튜브를 고려해 보고 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건 이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에바 씨는 결혼 후 "그래,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 지금은 여기에서 사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언젠가 러시아에서도 살아보고 싶어 해요. 아니면 그냥 제3의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아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나 음식, 문화를 소개하면서 칭송하거나 비교하는 것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요." 라고 그녀는 바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한국인이나 타국인 둘 다와 똑같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어려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녀가 생각하는 또 다른 목표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올해는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게 된 지 30년이 된 해다.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 취소되었다. 지금 에바 씨는 관련된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번역하거나 콜센터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택시 잡는 법에서부터 공항 화장실에 갇힌 사람을 진정시키는 일까지 온갖 일을 하고 있다.

스물여덟인 그녀는 꿈을 꿀 수 있는 충분한 재능과 시간이 있다. 그것도 두 개의 언어로.

조윤정 프리랜서 작가, 번역가
허동욱 사진 작가
(Koreana 계간, 2020년 겨울 33권 4호)

Бейк Ку Сен: сначала мы россияне, а потом — корейц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 странице)
— **А кому больше всего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 Надо смотреть по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Даже пенсионеров нужно дифференцировать — кто из них остро нуждается в поддержк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а кто ещё только уходит на пенсию и хотел бы поработать, например,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По лин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мы знаем всех стариков, кто и в чем нуждается, какая поддержка необходима. Но думаю, что здесь над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Должна быть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с властью разных уровн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те разрывы в солидарных связях поколений, плоды которой м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жинаем.
— **Не секрет, что решение многих проблем НКО зависит как раз от поддержки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 Считаю,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и очень много сделано в области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сё просто: пиши проекты, защищайся — получишь субсидии на сво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труктур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рая созд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Культура — это тоже внутренняя политика, идеология нашей жизни. Нужен такой подход в управлении,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л бы отслеживать ситуацию в обществе, работать на упреждение появляющихся проблем, учитывая, что мы живем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 **Что вы цените в людях? И, напротив, какие качества вам не нравятся?**
— Ценю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честность, умение войти в положение своего собеседника, патриотизм. Общая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а и Юга Кореи, я всегда говорю, что их главная ошибка в том, что они видят в нас прежде всего своих земляков — корейцев, а потом уже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А надо наоборот, сначала мы — граждане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а потом уже корейц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приемлю меркантильность, неискренность.
— **Вы считаете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 человеком?**
— Я счастлив, что здесь живу. Когда в 1967 году приехал в Хабаровск с Сахалина поступать в вуз, мне город сразу понравился. Я не понимаю людей,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нём плохо. Многие наши гости и даже те, кто уехал, характеризуют Хабаровск как красивый, чистый, уютный и спокойный город, который строится и развивается.
— **Что бы вы хотели изменить в своей жизни?**
— Особо нечего. Жизнь сложилась успешно.
— **Если бы у вас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одного желания, что бы вы пожелали?**
— Себе и всем только здоровья, всего остального можно достичь.
Марина СЕМЧЕНКО, «Тихоокеанская звезда»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оигравших в этот день, конечно же, не был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дружно болели за свои команды, поддерживали соперников,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ый заряд бодрости и отл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этапами эстафеты можно было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лы и согреться горячим чаем с печеньем.

В заверше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команды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А все семьи, пришедшие в этот день на семейную эстафету,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아르노 바바드좌난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2월 4일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며 교사인 아르노 바바드좌난의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 음악 행사가 조성된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 작곡가의 우수한 작품들을 사할린의 성악가와 음악가들인 파벨 알다코브, 라리사 카차이키나, 블라디미르 키노시타, 나제즈다 자마노와, 올가 웨레니킨이 선보인다.

노래로 '미의 여왕', '감사해. 너에게', '녹턴', '나에게 음악을 돌려줘', '하얀 깃털', '일요일' 등의 노래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이외에도 관객들에게 아르노 바바드좌난의 일대기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그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기념 행사는 사할린 일반과학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고 입장료는 자유이며 전화 문의는 +7 (4242) 45-25-28로.

Вечер к сто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рно Бабаджаняна пров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итературно-музыкальный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ели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пианиста, преподавателя Арно Бабаджаняна, состоится 4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Начало в 18.00.

Лучш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мпозитора на вечере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ские вокалисты и музыканты Павел Алдаков, Лариса Качайкина, Владимир Киносита, Надежда Жамьянова и Ольга Вереникина. Зрители услышат песни "Королева красоты", "Благодарю тебя", "Ноктюрн", "Верни мне музыку", "Пушинка белая", "Воскресенье" и др. Кроме этого, гостям расскажут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из биографии Арно Бабаджаняна и покажут фрагменты из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о нем.

Праздничный вечер пройдет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28,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눈의 이야기> 전시회 주 중심지에서 열려

지난 1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워크잘나야 거리 5a의 전시장에서 올해 첫 전시회가 열렸다. '눈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할린의 회화, 그래픽, 장식 공예예술의 유명 화가들, 러시아 화가동맹 회원들을 비롯해 아동예술학교의 교사와 학생

들이 연합해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핵심 주제는 러시아의 하얀 겨울이다. 이 작품들은 러시아 화가동맹 회원들과 사할린 유명 화가들의 풍경들로 조성용의 '용기의 산 정상', '오호츠크예', 올렉 노시레브의 '겨울의 향연', '봄', '파티', 안티포와-키리나의 '눈의 환상', 올렉 파푸진의 '박물관', '저녁이 되다', 나제즈다 트로예구보와 화가의 '밤부츠키 부락에서의 겨울', '수다쟁이', '곰의 피리', 빅토리아 쿠즈멘코의 '마을의 겨울', '눈 덮인 바닷가' 등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Снежная сказка" открылас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20 январ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5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первая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озиц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нежная сказка" объединены работы изв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астеров живописи, график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членов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учащихся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выставки стала русская снежная зима. Это пейзажи именитых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членов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е Сон Ена – "Пик Смелый" и "Охотское", О. Носырева – "Зимний вечер", "Весна", "Вечер", Н. Антиповой-Кириной – "Снежная фантазия", О. Папузина – "Музей", "Вечереет", Н. Трогубовой – "Зима в п. Бамбучки", "Кумушки", "Медвежий дудки", В. Кузьменко – "Поселок зимой", "У синего моря" и друг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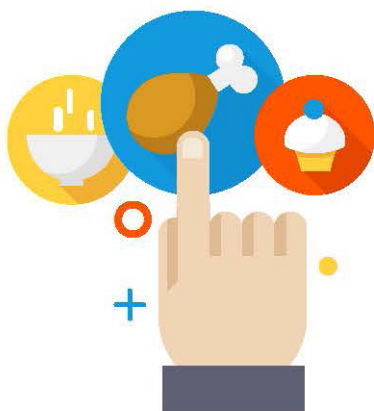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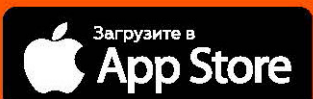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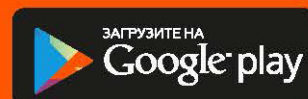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